나주반남면 대안리5호 백제석실분 발굴조사보고
(羅州潘南面 大安里5號 百濟石室墳 發掘調査報告)

崔　夢　龍
李　淸　圭
盧　燁　眞

目　次

一. 序
二. 發掘前의 狀態 및 調査方法
三. 立地條件 및 周邊狀況
四. 古墳構造
　ㄱ. 封土와 墓壙
　ㄴ. 石室
五. 出土遺物
　ㄱ. 長經壺
　ㄴ. 鉢
　ㄷ. 銀粧刀柄
六. 被葬者의 身分問題
七. 結語

一. 序(서)

1978年 3月 농업진흥공사(月農業振興公私) 영산강사업소(榮山江事業所)에서 영산강(榮山江) 4개(個)댐과 연결(連結)되는 농수로(濃水路)를 만들고자 전남(全南) 나주군(羅州郡) 반남면(潘南面)(第1圖)) 대안리(大安里) 자미산(紫薇山) 서(西)쪽 구릉상(丘陵上)의 밭 한가운데를 불도쟈로 제토(除土)하던 중(中)에 석실고분(石室古墳) 1기(基) 노출(露出) 일부(一部) 파괴(破壞)시켰다.

이 사실(事實)을 현지주민(現地住民)이 나주군청(羅州郡廳)에 알려와 나주군청(羅州郡廳)에서는 공보실직원(公報室職員) 김이봉(金二奉)씨(氏)등 파견(派遣)하여 문제(問題)의 고분현장(古墳現場)으로 가서 확인(確認)한 결과(結果) 불도쟈에 의(依)해 석실(石室)의 개석(蓋石)이 제거(除去), 파괴(破壞)되고 이미 토기(土器) 2점(點)과 관정(棺釘), 관(棺)고리 수점(數點), 인골편등(人骨片等)이 수집(收集)되어 있었으며 석실내부(石室內部)는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주군청(羅州郡廳)은 곧 용수로공사(用手路工事)를 중단(中斷)시키고 나서 본인(本人)에게 이 고분(古墳)의 발굴조사(發掘調査)을 알려 발굴허가(發掘許可)및 조사후(調査後) 동석실분(同石室墳)을 전남대(全南大)로 이전(移轉)할 것을 허가(許可) 받았으며 조사(調査)는 동년(同年) 5月 9日부터 15日까지 7일간(日間) 실시(實施) 하였다.

그런데 본인(本人)이 고분현장(古墳現場)에 도착(到着)해서 현지주위(現地周圍) 일대

(一帶)를 돌아 본 결과(結果), 이 석실고분(石室古墳)은 실은 전인 전인말(全人末)의 새로이 알려진 고분(古墳)이 아니라 1917年 당시(當時)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 위촉조사원(委囑調査員)이었던 곡정제일(谷井齊一)씨(氏)가 확인(確認)한 바 있던 이 일대(一帶) 백제고분(百濟古墳) 30여기중(餘基中) 하나인 대안리(大安里) 5호분(號墳)이 판명(判明)되었다(第2圖). 그렇다면 이 대안리(大安里) 5호분(號墳)은 동(同) 반남면(潘南面) 고분군중(古墳群中) 흥덕리(興德里) 이중석실분(二重石室墳)에 이어 두번째로 밝혀진 석실분(石室墳)이 되며[1)]

이 2(기)基의 석실분(石室墳)은 여지(餘地)의 대형(大形)왕관장 고분(古墳)과 피장자(被葬者)의 신분(身分)또는 시대(時代)에 있어 무슨 차이(差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점(點)에서 중요(重要)한 고분(古墳)이 아니라 할 수 없겠다.

이번 발굴조사(發掘調査)에서는 본인외(本人外)에 전남도청(全南道廳) 문화재(文化財) 담당관(擔當官) 임건웅씨(林建雄氏)가 자문위원(諮問委員)으로 수고(水鼓)하시고 서울대(大) 박물관(博物館)의 이청규(李淸圭), 동대학원(同大學院) 고고학과(考古學科)의 노혁진(盧爀眞), 전남대(全南大) 문리대(文理大) 사학과(史學科) 4(年) 성낙준(成洛俊), 사대(師大) 국사교육과(國史敎育科) 4年 이영문(李榮文), 동(同) 4年 이계표(李啓杓) 동(同) 4年 장익군(張益群), 서울대(大) 고고학과(考古學科) 2年 박순발(朴淳發)이 참가(參加)하였다.

특(特)히 이청규(李淸圭)씨와 노혁진씨(盧爀眞氏)는 본인(本人)이 마침 휴학준비(休學準備)로 말미암아 바쁜 중(中)에 현지(現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굴진행(發掘進行)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청규(李淸圭)씨는 사진촬영(寫眞撮影)을 노혁진씨(盧爀眞氏)는 측량(測量)을 맡아 주었으며, 그리고 보고서작성(報告書作成)에 있어서도 원고(原稿)를 이청규(李淸圭)씨(氏)가 도판정리(圖版整理) 노혁진씨(盧爀眞氏)가 각각(各各) 도맡아 수고(水鼓)를 해주었다.

二. 발굴전(發掘前)의 상태(狀態) 및 조사방법(祖師方法)
(第10圖, 第11圖, 第12圖)

동고분(同古墳)은 밭 경작(밭耕作) 또는 도굴등(盜掘等)으로 봉분(封墳)은 원형(原形)을 잃은지 이미 오래인데다가 본조사단(本調査團) 발굴현장(發掘現場)에 도착(到着)할 당시(當時)는 불도쟈에 의(依)해 봉토(封土)가 거의 완전(完全)히 해체(解體)되어 석실(石室)의 개석(蓋石)까지 노출(露出), 이동(移動)된 상태(狀態)이었다. 고분주위(古墳周圍)는 온통 전답(田畓)이며 석실선도남(石室羨道南)쪽 바로 아래는 아랫논의 조성(造成)으로 급(急)한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었다.

석실(石室)의 개석(蓋石)은 모두 3매(枚)인데 현실(玄室)을 덮었던 1매(枚)의 장대판석(長大板石)은 반파(半破) 제거(除去)되고 명실명부(石室內部)의 유물(遺物)들이 임의수합(任意收합) 된 상태(狀態)였다. 그리고나서 석실내부(石室內部)는 주위(周圍)에 밀린 흙으로 충전(充塡)되어 있었으며 일단 제거(除去)된 개석(蓋石)은 그 현실내부(玄室內部)에 사람들의 손이 함부로 못닿도록 한다고 불도쟈로 다시 덮어 놓았으나 원래위치(原來位置)대로 놓여져 있질 못하였다.

조사(調査)는 석실(石室)의 개석(蓋石) 3매(枚) 즉(卽) 현실내부(玄室蓋石) 1매(枚)와 그보다 작은 선도개석(羨道蓋石) 2매(枚)를 일단 들어낸 후(後) 석실(石室)의 구조(構

造)와 축조방법(築造方法)을 파(把)토록 하고 석실내부(石室內部)의 토사(土砂)를 조심스럽게 걷어 내면서 남아있을지도 모를 유물(遺物)을 위치확인(位置確認)하면서 수습(收拾)하기로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석실(石室)을 짜넣기 위해 마련된 묘광(墓壙)과 그리고 판축상태(版築狀態), 그리고 또 봉분(封墳)의 범위(範圍)를 밝힐 수 있는 한, 밝히고자 현실(玄室)의 서측장벽(西側障壁) 바깥에 벽판석(壁板石)과 교차(交叉)되는 방향(方向)으로 또 하나는 남(南)쪽 선도폐쇄부(羨道閉鎖部) 전방(前方)에 폭(幅) 50cm정도(程道)의 트렌치를 각각(各各) 구획(區劃) 단면층위조사(斷面層位調査)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同) 대안리(大安里) 5호(號) 백제석실분(百濟石室墳) 전남대(全南大)로 이전(移轉), 복원(復元)키로 되어 있으므로 석실(石室)을 구성(構成)하는 개개(個個)의 판석(板石)이 뽑아질 때 그 판석(板石)의 축조상태(築造狀態)를 확인(確認)토록 하고 바닥처리(處理)도 소규모(小規模) 테스트피트(TestPit)로써 확인(確認)토록 하였다.

三. 입지조건(立地條件)및 주변상황(周邊狀況)

이 일대(一帶) 나주(羅州) 번남면(番南面)의 고분군(古墳群) 그러니까 이곳 자미산(紫微山)을 중심(中心)으로 신촌리(新村里). 덕산리(德山里). 대안리(大安里). 흥덕리(興德里)에 산재(散在)된 7군(群) 30여기(餘基)의 고분중(古墳中) 발굴조사(發掘調査)된것은 11기(基)이며 단 1기(基) 흥덕리(興德里) 석실분(石室墳)을 제외(除外)하고는 그 전부(全部)가 대형옹관고분(大形甕棺古墳)이었다.[2)]

그리고 우리 조사단(調査團)이 이 일대(一帶)의 고분군(古墳群)을 둘러 볼때 도굴(盜掘), 산견(散見)되는 옹관파편(甕棺破片)으로써 확인(確認)된 사실(事實)로서도 이 일대 고분(一帶古墳)의 대부분이 옹관분(甕棺墳)이였음이 확실(確實)하였다.[3)]

또한 가까운 영암군(靈岩郡) 시종면(始終面) 내동리(內洞里)에서도 똑같은 형식(型式)의 삼국시대(三國時代) 대형옹관고분군(大形甕棺古墳群)이 발굴조사(發掘調査)된 바 있다.[4)]

대안리(大安里) 5호(號) 석실분(石室墳)은 표고(標高) 약(約) 100m의 자미산(紫微山) 산정(山頂)에서 서(西)쪽으로 500m정도(程度) 떨어진 저구릉상(底丘陵上) 있었으며 그 구릉(丘陵)의 북고남저(北高南底)의 완경사면(緩傾斜面)에 선도(羨導)를 남(南)쪽에 두고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근처(近處)에는 자미산성(紫微山城)이 있으며 이 성(城)은 토성(土城)으로 현재퇴락(現在頹落)되어 그 윤곽(輪廓)을 정확(正確)하게 파악(把握)하기는 어려우나 여하튼 이 대안리(大安里) 5호분(號墳)이 이 자미산성(紫微山城) 인근(隣近) 당대주민(當代住民)과 관련(關連)있는 것은 말할 나위없다.

또 한편 이 지역(地域)에는 황해(黃海)로 빠지는 영산강(榮山江)과 삼포강(三浦江) 하류(下流)가 흐르고 있으며 그 유역(流域)에 넓은 충적평야(沖積平野)가 잘 발달(發達)돼 있어 비옥(肥沃)한 농경지대(農耕地帶)가 형성(形成)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일대(一帶)의 너른 영산강평야(榮山江平野)를 생활근거(生活根據)로 하는 백제농경민(百濟農耕民) 집단(集團)과 관련(關聯)있는 것이 여기 자미산성(紫微山城) 주위(周圍)의 옹관고분군(甕棺古墳群)과 석실분(石室墳)인데 필자(筆者)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두 형식(形式)의 서로 다른 전통(傳統)을 갖는 고분(古墳)이 동시대(同時代), 동

일집단(同一集團)의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5)]
그래서 그에 대(對)한 논의(論議)를 따로 장(章)을 내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四. 고분구조(古墳構造)

ㄱ. 봉토(封土)와 묘광(墓壙)

봉토(土)는 현재(現在) 그 원칙(原則)이 파괴(破壞)되어 그 형태(形態)나 높이, 범위(範圍)를 파악(把握)할 수 없었으나 다만 석실(石室)의 서벽(西壁)바깥쪽에 구획발굴(區劃發掘)했던 트렌치 토층상(土層上)에서 구지표층(舊地表層)과 그 위의 봉분성토층(封墳成土層)이 연장(延長)되어 만나는 점(點)을 봉토(封土)의 끝으로 잡아 대략(大略) 전체 직경(全體直徑) 14m되는 원형봉분(圓形封墳)이라 추정(推定)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봉분(封墳)은 석실상면(石室上面)에 일단 누수방지(漏水防止)를 위(爲)한 회색점토(灰色粘土)를 30cm정도(程度)로 두텁게 바른 후(後) 성토(成土)한 것이 불도쟈가 미처 깎지 못한 석실북단잔존개석(石室北端殘存蓋石) 상면(上面)에서 확인(確認)되었으며 대체로 그 봉토(封土) 높이는 다른 완전지하식(完全地下式) 백제석실분(百濟石室墳)의 예(例)와 비슷한 높이가 아닐까 생각된다.[6)]

역시 트렌치 조사(調査)에 의(依)해서 밝혀진 결과(結果)에 의(依)하면 묘광(墓壙)은 위가 넓고 아래가 조은 사다리꼴로 석실장축방향(石室長軸方向)과 동일(同一)한 남북장축(南北長軸)의 장방형(長方形)으로 그리고 석실(石室)의 범위(範圍)보다 넓게하여 파 만들었다.

선도(羨導)남쪽 2m정도(程度) 길이의 트렌치 상(上)에서는 묘광(墓壙)의 벽(壁)어깨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장축(長軸)이 유달리 길었음이 분명(分明)하며 생각컨대 이것은 석실(石室)의 벽판석(壁板石)을 북(北)쪽 현실단벽(玄室短壁)부터 시작(始作)해서 남(南)쪽 선도(羨道)쪽으로 짜 만들어 나온 것을 말해 주는 게 아닌가 한다.

현실(玄室) 북단벽(北短壁) 제일(第一) 먼저 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벽판석(壁板石)의 뿌리가 유달리 깊게 묻혀 다음에 짜만들 동서장벽(東西長壁)의 판석(板石)을 지탱(支撐)해 주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봐서도 확실(確實)하다.

묘광(壙)은 또 석실축조(石室築造) 당시(當時)의 구지표(舊地表)에서 석실(石室)의 천장개석(天障蓋石)이 구지표(舊地表)레벨에 간신히 오를 정도(程度)의 깊이로, 그러니까 석실(石室)이 완전지하(完全地下)에 안치(安置)할 수 있도록 석반(石盤) 석비레층(層)을 파 내려갔으며(제(第)5도(圖)), 묘광(墓壙)에 석실(石室)이 짜들어가고 남는 여백(餘白)은 회색점토(灰色粘土)와 적색사질점토(赤色砂質粘土)를 교대(交代)로 판축(版築)하여 다져넣었다.

석실벽석외면(石室壁石外面) 역시 석실개석상면(石室蓋石上面)과 마찬가지로 누수방지(漏水放支)를 위한 회색점토(灰色粘土)를 30cm정도(程度) 두께로 전면(全面)에 두텁게 발랐으며 단지 선도폐부(羨道閉部)쪽만 예외(例外) 였다.

판축(築)과 누수방지용(漏水防止用)의 회색점토(灰色粘土)는 그 출처(出處)가 확실(確實)하지 않으나 혹(或) 동리(洞里)사람 말대로 인근(隣近) 삼포강(三浦江) 하구(河口) 갯벌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ㄴ. 석실(石室)(第3圖, 第4圖, 第13圖)

석실(石室)은 그 형식(型式)으로 보아 부여지방(扶餘地方)에서 보이는 판석조(板石造)의 백제말기(百濟末期)의 평천장식석실분(平天障式石室墳)으로서 그 장축방향(長軸方向) 대체(大體)로 남북(南北)으로 하고 있다.

동(同) 대안리(大安里) 5호분(號墳)의 현실(玄室)선도(羨道)의 장축(長軸), 폭(幅), 고(高)를 보면 아래와 같아, 현실(玄室) 대(對) 선도(羨道)의 장축차(長軸此)와 폭차(幅此)는 대략(大略) 1.5:11, 1:1이고 현실(玄室)의 장축대(長軸對) 폭차(幅此) 꼭 2:1이다.

	현실(玄室)	선도(羨導)	현실(玄室) 선도(羨導)
장축(長軸)	218cm	138cm	1.5 : 1
폭(幅)	109cm	103cm	1 : 1
고(高)	103cm	89cm	

(석실(石室)의 장축(長軸), 폭(幅), 고(高) 실측치(實測値))

a. 현실(玄室)(第14圖)

현실(玄室)은 평면상(平面上) 장방형(長方形)으로 東.(東.)西의 장벽(長壁)은 각각(各各) 크기가 다르나 공(共)히 두께 8cm되는 3매(枚)의 잘 타정(打整)된 판석(板石)으로 축조(築造)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실북벽(玄室北壁)은 1매(枚) 판석(板石)으로만 구축(構築)되어 있으며 그 벽석(壁石)의 밑뿌리는 현실(玄室) 바닥면(面) 훨씬 아래로 내려가 암반(岩盤) 석비레 층(層)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점은 동서(東西) 양벽(兩壁)의 벽석(壁石)도 마찬가지이나 그것보다 훨신 밑으로 내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북벽(北壁)을 제(第)1순서(順序)로 구축(構築)한 다음 양(兩)쪽 동서벽(東西壁) 그리고 바닥 천장순(天障順)으로 짜만든 구축순서(構築順序)를 말해 주는것이 아닌가 한다.

바닥면(面)에는 폭(幅) 0.75m, 길이 2.14m 두께 8cm의 잘 다듬은 1매(枚)의 장방형판명(長方形板名)이 동편(東偏)에 치우쳐 깔려 있었고 나머지 미처 그 장대판석(長臺板石)으로 깔지 못한 서편(西偏)에는 부정형(不整形)의 얇은 소형판석(小形板石)으로 메꾸어져 있어 전(全) 바닥면(面)은 편평(扁平)하였다.

본(本) 조사단(調査團)이 수습정리(收拾整理)한 인골소편(人骨小片)이나 은장도병(銀粧刀炳), 금사(金紗), 관(棺)고리, 관정(棺釘) 수점(數點)은 바로 이 소형판석(小形板石)이 깔린 부분(部分)에 치우쳐 놓여 있었는데 이것이 원래(原來)의 위치(位置)가 아님은 분명(分明)하다(第 17圖).

그리고 이 소형판석(小形板石)밑에는 세사혼입(細砂混入)의 황색점토(黃色粘土)가 두께 5cm정도(程度)로 고르게 깔려 있었는데 배수(背水) 시설(施設)이 따로 발견(發見)되지 않는 현실(玄室)에 있어 이층(二層)이 배수시설(背水施設)의 역할(役割)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장대판석(長臺板石)밑에는 이 세사혼입(細砂混入)의 황색점토층(黃色粘土層)이 없고 곧바로 암반(岩盤) 석비레층(層)이었다.

현실천장(玄室天障)은 1매(枚)의 장대판석(長大板石)으로 덮혀있었는데 두께 15cm의 것으로 이 천장석면(天障石綿) 역시 그 표면(表面)이 잘 타정(打整)된 것으로 북벽(北

壁), 동서양벽(東西兩壁)과 접석(接石)되는 부분(部分)에는 요(凹)홈이 파져 서로 잘 맞물리게 되어 있었다.(第 16圖).

b. 문비(門扉).문주(門柱)및 문하판석(門下板石)

선도(羨導)에서 현실(玄室)로 들어가는 현실입구(玄室入口)는 입구(入口) 동서좌우(東西左右)에 각기(各其) 1매(枚) 장방형판석(長方型板石)으로써 2석주(石柱)를 짜 만들고 문하판석(門下板石)으로써 2개(個) 석주간(石柱間)에 1매(枚) 장방형판석(長方形板石)을 장변측면(長邊側面)이 상면(上面)으로 오게 하고 그 높이를 현실(玄室) 바닥면(面)에 맞도록 조성(造成)한 다음 1매(枚)의 판석(板石)으로 된 석비(石扉)로 폐쇄(閉鎖) 시켰다.

석주(石柱)의 뿌리도 다른 벽석(壁石)과 마찬가지로 현실(玄室)바닥면(面) 이하(以下)에 묻혀 있었고 석비(石扉)는 현실(玄室) 바닥면(面)보다 5cm정도 낮은 선도(羨道) 바닥면(面)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석비(石扉)의 상면(上面)은 역시 현실천장(玄室天障)보다 낮은 선도천장(羨道天障)높이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석주(石柱) 2개중(個中) 서(西)쪽 것은 현실서벽(玄室西壁)과의 접석면(接石面)에 요(凹)홈이 파져있었다.

c. 선도(羨道)

선도(羨道)도 현실(玄室)과 같이 장방형(長方形)으로 그 폭(幅)은 현실(玄室)의 폭(幅)에 비(比)해 약간 작은 정도(程度)이나 장축(長軸)은 현실(玄室)의 2/3크기이다.

선도(羨道)의 동서양벽(東西兩壁)은 둘다 2매(枚)의 대소판석(大小板石)으로 축조(築造)되어 있었으며 바닥시설(施設)로서는 현실서편(玄室西偏)에 깔려 있던 세사혼입(細砂混入)의 황색점토(黃色粘土)가 두께 5cm 정도(程度)로 깔려 있을뿐 별다른 시설(施設)이 없는 상태(狀態)이어서 이도 역시 현실(玄室)과 같이 배수시설(背水施設) 대용(代用)이 아닌 가 생각된다.

선도(羨道)의 천장석(天障石)으로는 두께 15cm정도(程度)로 2매(枚)의 대소(大小) 부정형(不定形) 장방형판석(長方形板石)이 덮혀 있었으며 현실천장석(玄室天障石)과는 다리 벽석(壁石)과의 접석면(接石面)에 요(凹)홈이 없었다. 선도폐부(羨道閉部)는 2매(枚)의 부정형판석(不定形板石)으로 폐쇄(閉鎖)되어 있었다.

五. 출토유물(出土遺物)

출토유물중(出土遺物中) 장경호(長頸곤) 흑회색경질토기(黑灰色硬質土器) 1점(點), 발형적갈색연질토기(鉢形赤褐色軟質土器) 1점(點), 관정(棺釘), 관(棺)고리, 인골소편(人骨小片), 수점(數點)은 본조사단(本調査團)이 조사(調査)하기 전(前)에 임의수집(任意收集)된 것으로서 원위치(原位置)를 알수 없었다. 또한 본조사단(本調査團)이 수집(收集)한 은장도병(銀粧刀柄) 1점(點), 금사(金砂), 관정(棺釘), 관(棺)고리 인골편수점(人骨片數點) 역시 이미 교난(攪亂)된 상태(狀態)에서 수집(收集)된 것으로서 원래매장상태(原來埋藏狀態) 알수 없었다.

인골편중(人骨片中)에 혹시 피장자(被葬者)의 성별(性別).연령(年齡)등(等)을 확실(確實)히 알려줄 만한 치아(齒牙)라든가 하는 골편(骨片)이 있을까 기대(期待)했으나 그런 것은 없었고 대체(大體)로 성년(成年)의 것으로만 짐작되는 정도(程度)의 것 뿐이었다.

여기서는 출토유물중(出土遺物中) 중요(重要)하게 생각되는 다음3점(點)만 소개(紹介)

하기로 한다.

ㄱ. 장경호(長頸壺)일점(一點)(第5圖, 第18圖)

고(高) 23.5cm.口徑5.7cm, 경고(頸高) 7.0cm, 복최대경(腹最大徑) 17.0cm, 저경(底徑) 8.5cm, 기후(器厚) 0.6cm

이 흑회색경질토기(黑灰色硬質土器) 장경호(長頸壺)는 이제껏 백제(百濟). 신라(新羅). 고구려지역(高句麗地域) 할 것 없이 출토예(出土例)를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예(例)이다. 이와 비슷한 기종(器種)의 것은 일본(日本)에서도 그 유례(類例)를 찾기 어려우며,[7]

오히려 그 비슷한 유예(類例)를 찾으려면 중국(中國) 서북조시대(西北朝時代) 토기류(土器類)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8]

생각되나, 아직 그 확실(確實)한 자료(資料)를 얻어내지 못하였다.[9]

구연부(口緣部)는 구진(口唇)에 1조(條)의 홈을 가지면서 외반(外反)된 정도(程度)가 비교적(比較的) 크며 높고 좁은 구경(口徑)의 경부(頸部)는 기복부(器腹部)로 내려갈 수록 조금씩 축약(縮弱)되다가 기복부(器腹部)에 바로 이르러서는 갑자기 팽창(膨脹)된다. 체(體)는 난형(卵形)보다는 오히려 구형(球形)에 가까우며 최대폭(最大幅)을 체상부(體上部)에 갖는다. 저부(底部)는 평저(平底)이다.

전체적(全體的)인 기형(器形)으로 보아 삼국시대초기(三國時代初期)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ㄴ. 발(鉢)(第6圖, 第19圖)

고(高) 10.6cm, 구경(口徑) 10.2cm, 복최대경(腹最大徑) 11.7cm, 저경(底徑) 8cm, 기후(器厚) 0.6cm

이 토기(土器)는 적갈색연질토기(赤褐色軟質土器)로 표면(表面)에 승석문(繩蓆文)이 있는, 그러니까 김해기(金海期) 또는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 원삼국기(原三國期)로부터 삼국시대말(三國時代末)까지 상당히 오래 지속(持續)되며 나타나는 기종(器種)이다. 출토지역(出土地域)도 백제(百濟). 신라(新羅) 지역(地域) 구별(區別)없다.

기고(器高)와 구경(口徑)이 비슷하고 최대복경(最大腹徑)은 오히려 그보다 크며 외반(外反)된 구연(口緣)에 잠깐 축약(縮約)된 기경(器頸), 두툼한 동체(胴體), 낮은 기고(器高)에 넓은 평저(平底)가 특징적(特徵的)이다. 최대복경(最大腹徑)은 동체상부(胴體上部)에 있다.

ㄷ. 은장도병(銀粧刀柄)(第7圖, 第20圖)

잔존(殘存) 길이 11.8cm, 폭(幅) 1.5cm, 두께 1.3cm

도자(刀子)의 병부(柄部)로서 도신(刀身)은 멸실(滅失)됐고 칼코가 함께 출토(出土)되었다.

표면(表面)에 어린문양(魚鱗文樣)이 있는 은장병부(銀粧柄部)는 근처 신촌리(新村里)에서 조사(調査)된 신촌리(新村里) 9호(號) 을관(乙棺)의 옹관출토환두대도(甕棺出土換

頭大刀)에서도 보이나 병두(柄頭)가 서로 판이(判異) 하며 지금으로서는 서로간의 관계(關係)에 대해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10)]

六. 피장자(被葬者)의 신분문제(身分問題)

동(同) 석실분(石室墳)에서 피장자(被葬者)의 신분(身分)을 확실(確實)히 알려 줄말한 유물(遺物)은 출토(出土)되지 않았다. 피장자(被葬者)의 인골편(人骨片)도 성별(性別)이나 연령(年齡)을 알려 줄 만한 것도 없고 전부 산실(散失)된 소편(小片)뿐이어서 다만 성년(成年)의 그것이라는 추측(推測)만 될 뿐이다.

판석조(板石造) 광혈석실분(광穴石室墳)은 부여지방(扶餘地方)에서 성행(盛行)했던 고분양식(古墳樣式)이며 그 중(中)에서도 여기 대안리(大安里) 5호분(號墳)과 같은 평천장식(平天障式) 은 벽수직형식(壁垂直型式)의 석실분(石室墳)은 백제말기(百濟末期)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전(傳) 왕릉(王陵)의 능산리(陵山里) 1호벽화분(號壁畵墳)을 들 수 있는데 전자(前者)는 대체(大體)로 후자(後者)를 간략(簡略)소규모화(小規模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여지방(扶餘地方)의 판석조석실분(板石造石室墳)의 피장자(被葬者)가 백제(百濟)가 부여천도(扶餘遷都)를 한 그 이후(以後) 즉(卽) A.D6C중기이후(中期以後)의 그 지역세력가(地域勢力家) 또는 귀족층(貴族層)일 것이라는 사실(事實)은 두말한 필요(必要)도 없지만 능산리(陵山里) 1호분(號墳) 경우처럼 왕(王) 일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읍지(都邑地)인 부여(扶餘)에 훨씬 떨어진 변방(邊方)의 판석조(板石造) 광 혈석실분(穴石室墳)이 중앙귀족출신(中央貴族出身)의 것이라고 곧바로 생각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분명(分明)한 것은 이곳 나주(羅州) 반남면(潘南面) 일대(一帶)에는 인근(隣近) 영암(靈岩) 내동리(內洞里) 지역(地域)을 포함(包含)하여 대형옹관분(大形甕棺墳) 토착세력가(土着勢力家)의 무덤으로 성행(盛行)했던 지역(地域)이라는 점(點)이다.

이 영산강(榮山江) 하류지역(下流地域)은 해외교역(海外交易)에 적당(適當)한 지리적(地理的) 조건(條件), 그리고 이 일대(一帶)의 넓은 평야(平野)를 기반(基盤)으로 하는 토착민집단(土着民集團)이 일찍부터 자리잡고 있어 적어도 백제(百濟)가 공주(公州)로 천도(遷都)하기 까지는 그 독립적(獨立的) 토착세력(土着勢力)이 강성(强盛)했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11)]

그리고 마한(馬韓) 50여국중(餘國中) 반고국(半古國)의 위치(位置)를 이 지역(地域)에 비정(比定)하고 있는 것이 사학계(史學界)의 통설(通說)인 것으로 알고 있다.[12)]

이렇게 이 일대(一帶)에는 강력(强力)한 토착세력(土着勢力)이 있었으며 그들 토효(土梟)의 무덤이 이곳의 특징적(特徵的)인 대형옹관고분(大形甕棺古墳)이었음을 고려할 때 석실분(石室墳)은 아무래도 그들의 무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시대(時代)가 바뀌어 혹(或)새로운 양식(樣式)의 무덤을 그들 집단(集團)의 후대손(後代孫)들이 전통적(傳統的)인 것을 버리고 할 수도 있겠으나 백제왕실(百濟王室)이 부여(扶餘)로 천도(遷都)하고나서 五方을 설치(設置)하고 방하(方下)에 몇개의 군(郡)을 소속(所屬)시키는 지방통치제도(地方統治制度)가 성립(成立)된 방(方)군제(郡制), 다시 말해서 사비시대(泗비時

代) A.D538年이후(以後) 중앙관리(中央官吏)가 지방(地方)에 파견(派遣)되는 제도(制度)가 성립(成立)된 사실(史實)을[13)]

주목(注目)한 필자(筆者)는 그 파견(派遣)된 중앙관리(中央官吏)의 무덤이 바로 이 대안리(大安里) 5호(號)석실분(石室墳)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이곳의 광활한 평야(平野), 상업교통지(商業交通地)로서 적당(適當)한 지리적(地理的) 배경(背景), 그리고 자미산성(紫微山城), 대형옹관고분군(大形甕棺古墳群) 같은 유적등(遺蹟等)을 고려(考慮)해 보면 이곳에서는 막강(莫强)한 토착세력(土着勢力)이 웅거(雄居)하던 대성(大城)이 분명(分明)히 있었으며 이 세력(勢力)을 통제(統制)하기 위한 중앙관리파견(中央官吏派遣)은 백제중앙정부(百濟中央政府)로서는 지방통치(地方統治)에 있어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七. 결어(結語)

이상(以上)의 내용(內容)을 요약해보면 대안리(大安里) 5호(號)석실분(石室墳)은 판석조(板石造) 평천장식(平天障式), 사벽수직(四壁垂直)의 백제말(百濟末) A.D6-7C경의 고분(古墳)으로서 전대(前代)의 성행(盛行)했던 이 일대(一帶)의 대형옹관고분군(形甕棺古墳群)이 호족(豪族)들 것인데 반해 백제왕실(百濟王室)이 사비천도(泗비遷都) 이후(以後) 중앙(中央)에서 파견(派遣)한 관리(官吏)의 무덤일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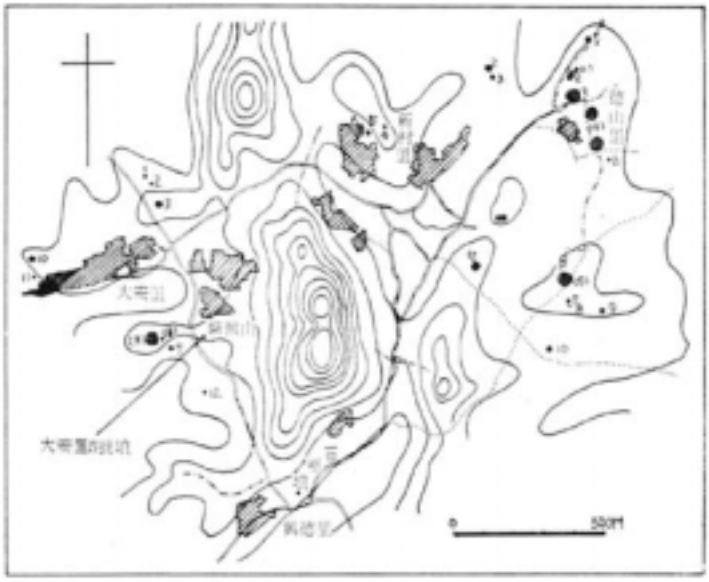
이런 주장(主張)은 확실(確實)한 근거(根據)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5C이전(以前)에 출현(出現)하여 5C후반(後半)까지[14)]

성행(盛行)한 옹관고분군(甕棺古墳群)과는 동(同)석실분(石室墳)은 전(全)혀 전통(傳統)을 달리하는 것이며 이런 석실분(石室墳)형식(形式)은 부여지방(扶餘地方)에서 6C중기이후(中期以後) 중앙귀족(中央貴族)들 무덤으로 성행(盛行)했던 바로 그런 형식(形式)으로서 이 지역(地域)에서는 생소한 것이라는 사실(事實)과 그리고 부여(扶餘) 천도이후(遷都以後) 지방세력(地方勢力)을 통제(統制)하고자 군방제(郡方制)를 실시(實施), 중앙관리(中央官吏)가 파견(派遣)된 사실(事實)을 고려(考慮)할 때 충분(充分)히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옹관고분(瓮棺古墳)과 석실분(石室墳) 둘다 세력가(勢力家)의 무덤이라면 서로 판이(判異)하게 전통(傳統)의 무덤이 동시대(同時代) 혹(或)은 동일(同一) 집단(集團)의 고분(古墳)으로서 한 곳에 존재(存在) 한다는 사실(事實)은 이해(理解)하기가 어렵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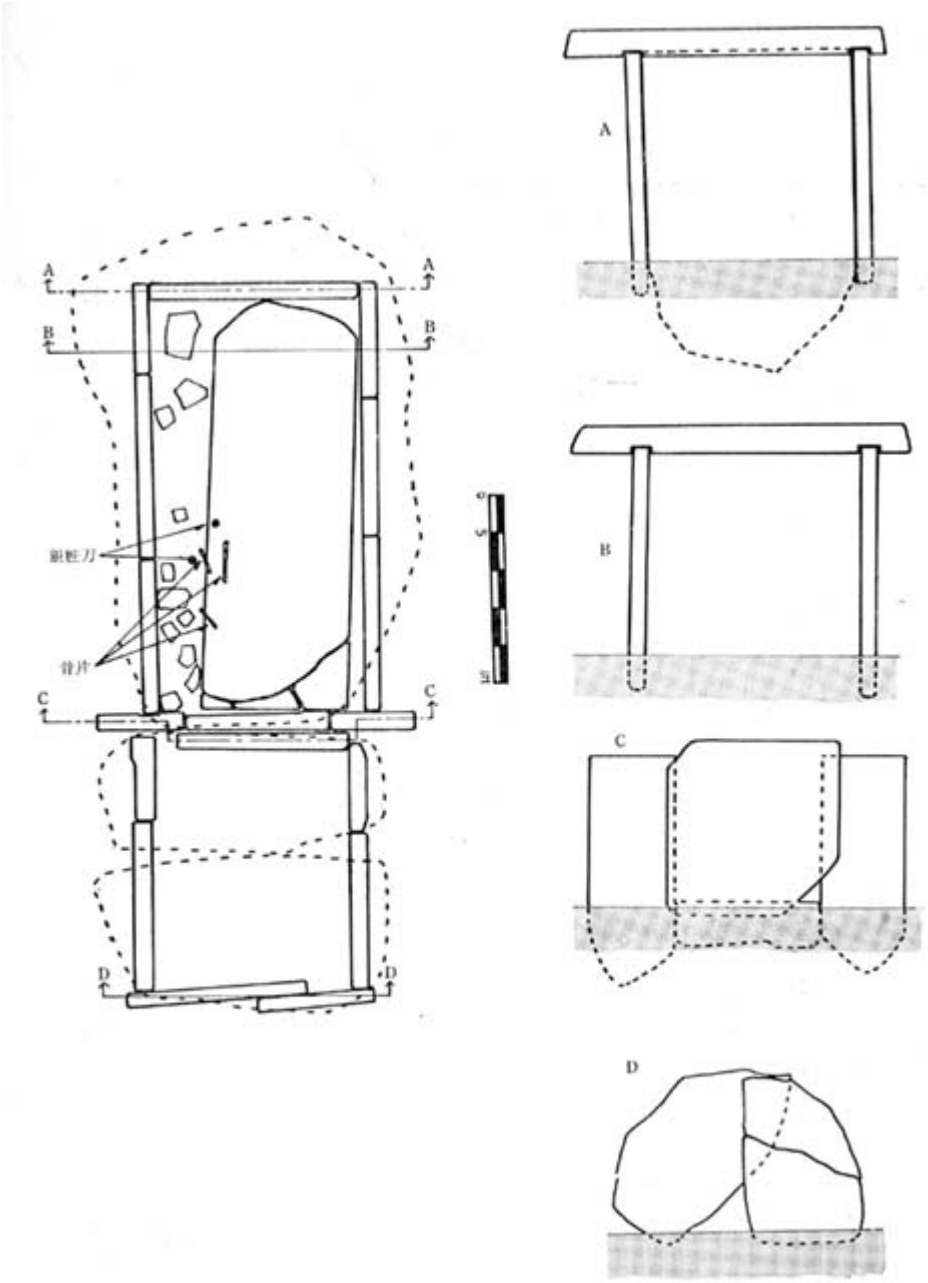
第1圖 羅州郡潘南面位置

第1圖 나주군반남면위치(羅州群潘南面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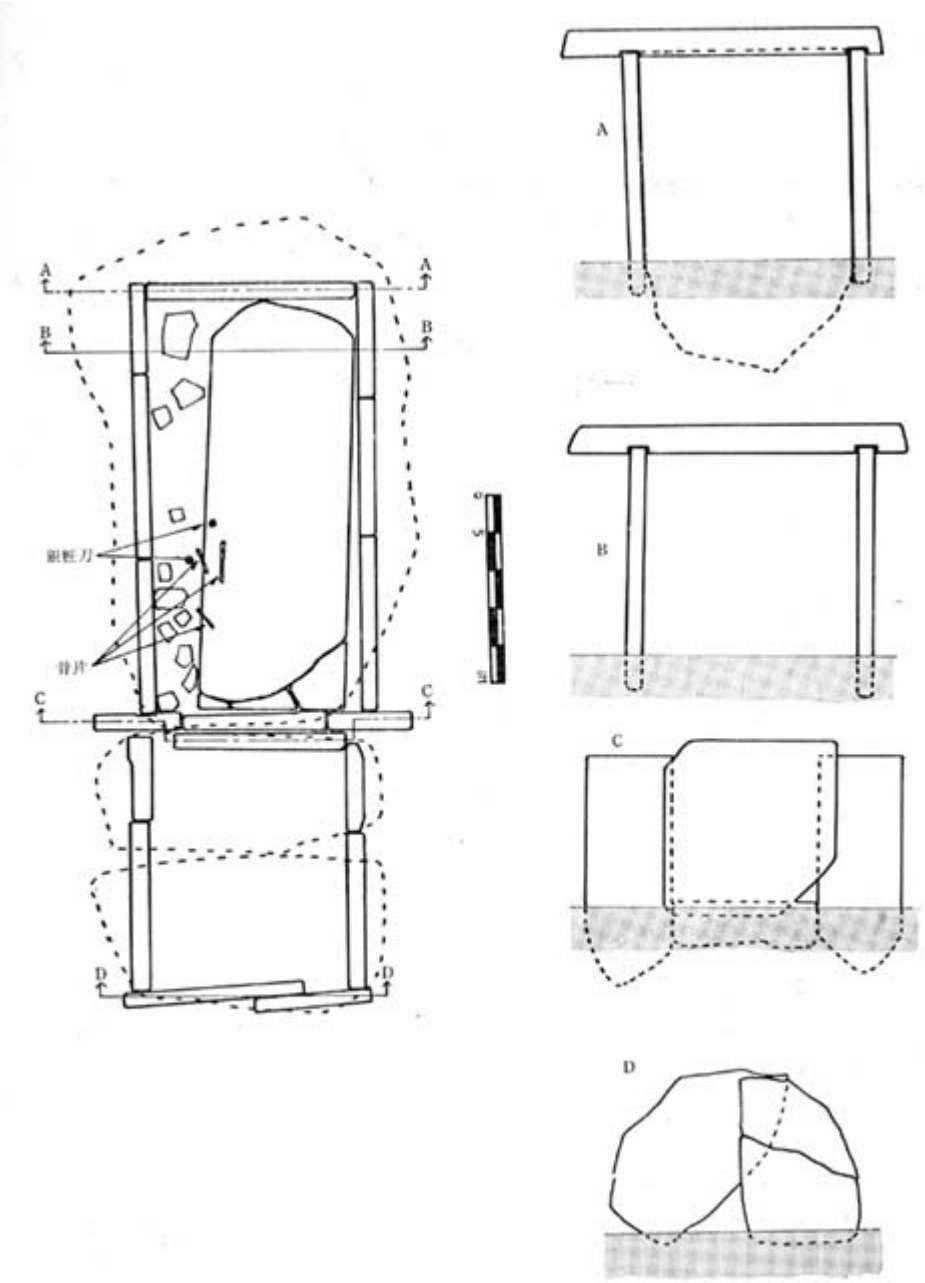
〈第2圖 潘南面 古墳群·「昭和十三年度 古蹟調査報告」所收圖版, (　　)은 谷井濟一氏 發掘古墳〉

第2圖 반남면(潘南面) 고분군(古墳群)「소화십삼년도(昭和十三年度) 고적조사보고(古蹟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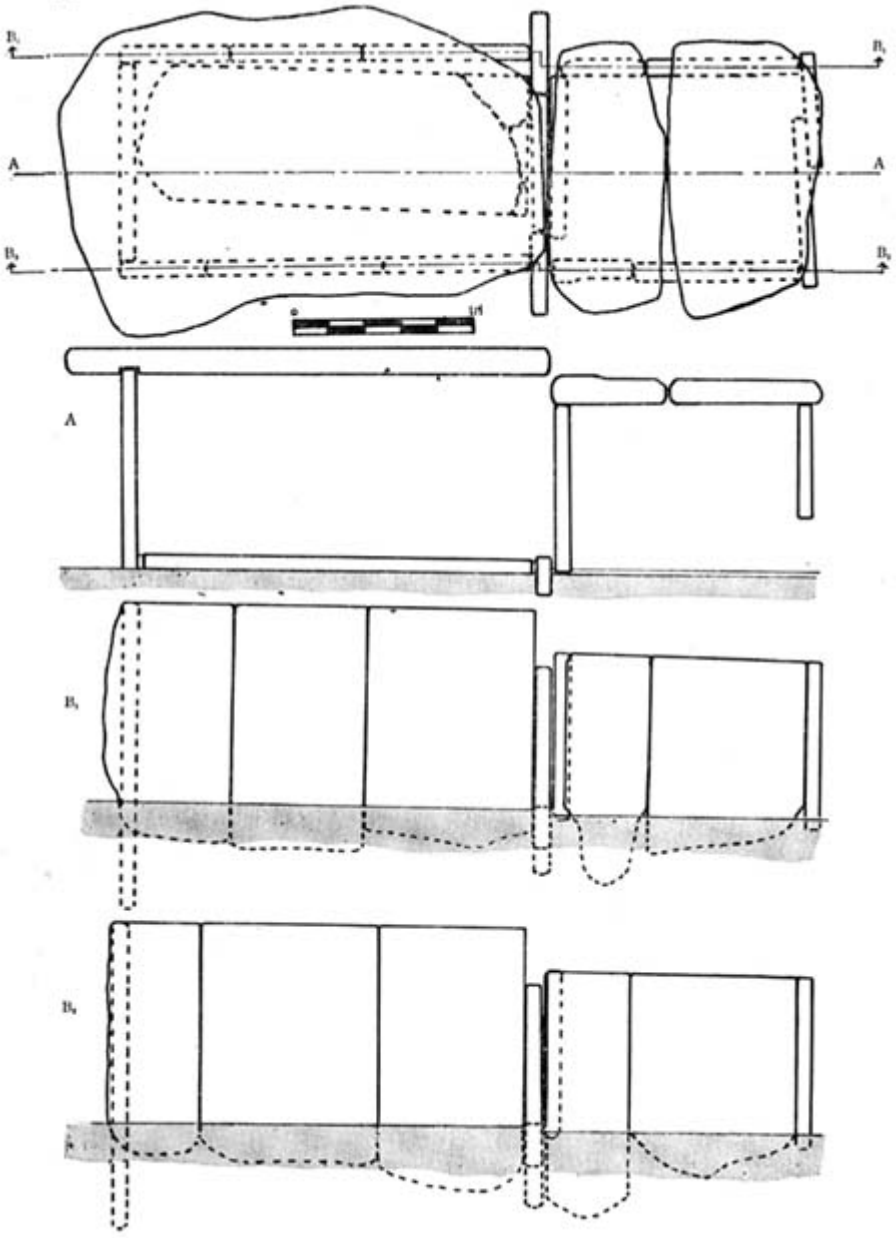
〈第3圖 石室平面圖 및 斷面圖〉

報告)」 소수(所收) 도판(圖板), (　　)은 곡정제일(谷井濟一)씨(氏) 발굴고분(發掘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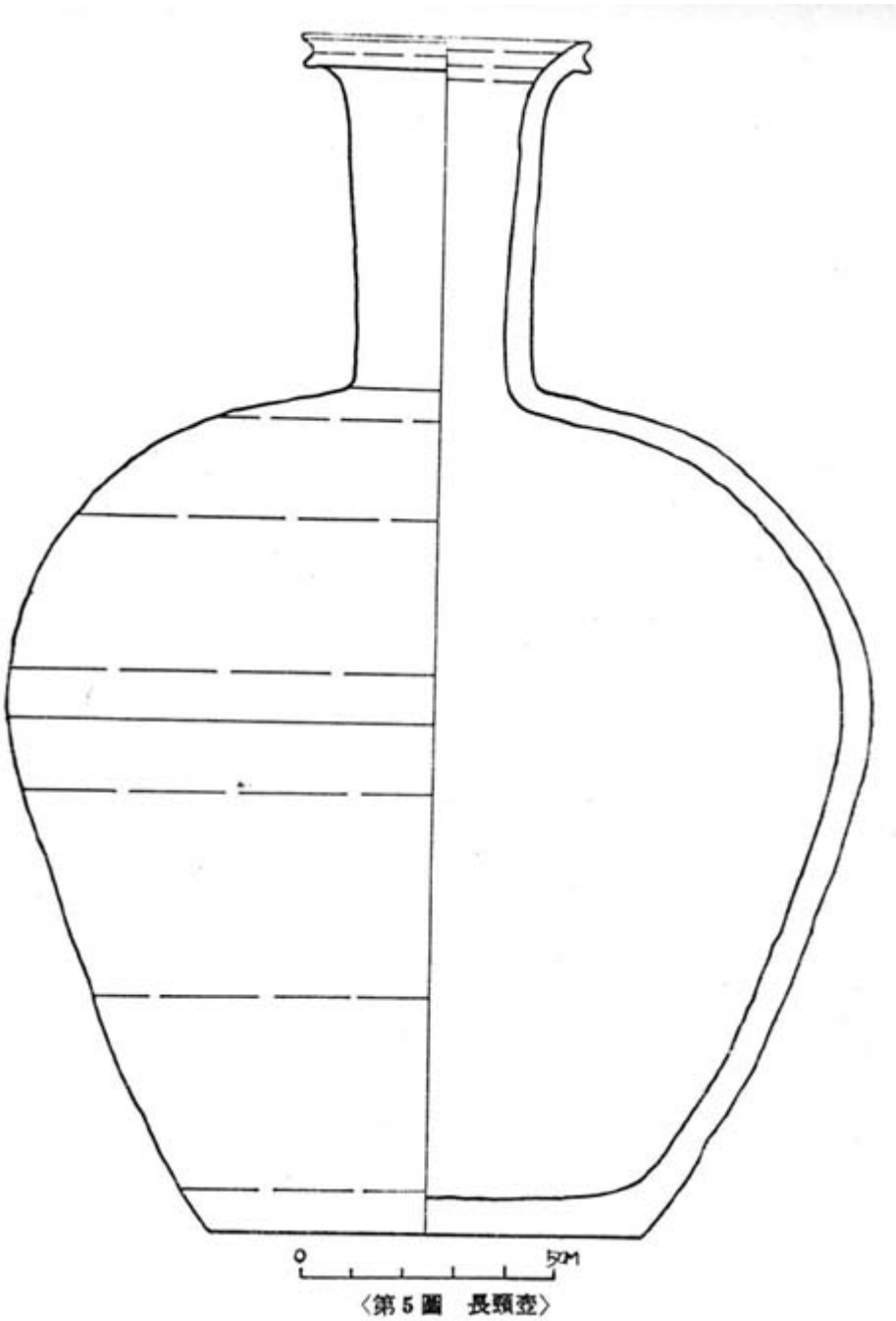
〈第3圖 石室平面圖 및 斷面圖〉

第3圖 석실평면도(石室平面圖) 및 단면도(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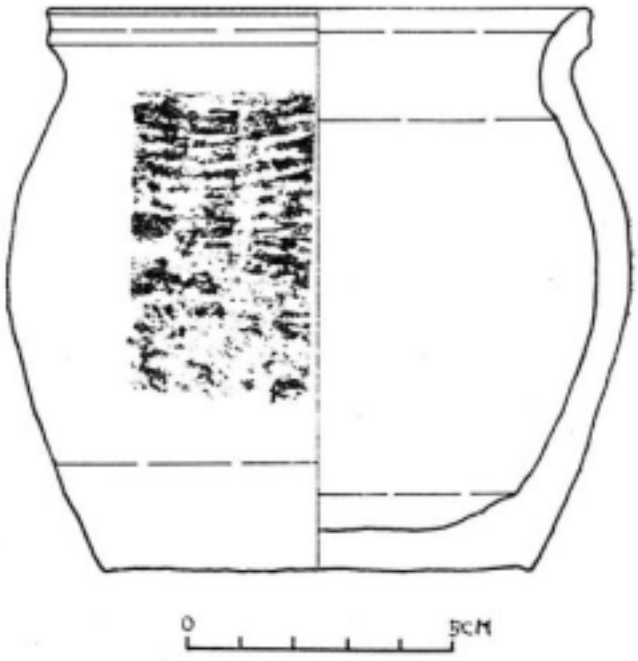
〈第4圖 石室側面圖〉

第4圖 석실측면도(石室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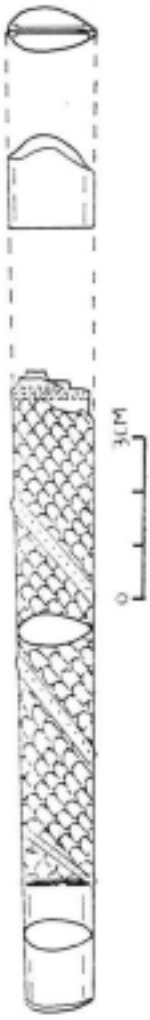
〈第 5 圖　長頸壺〉

第5圖 장경호(莊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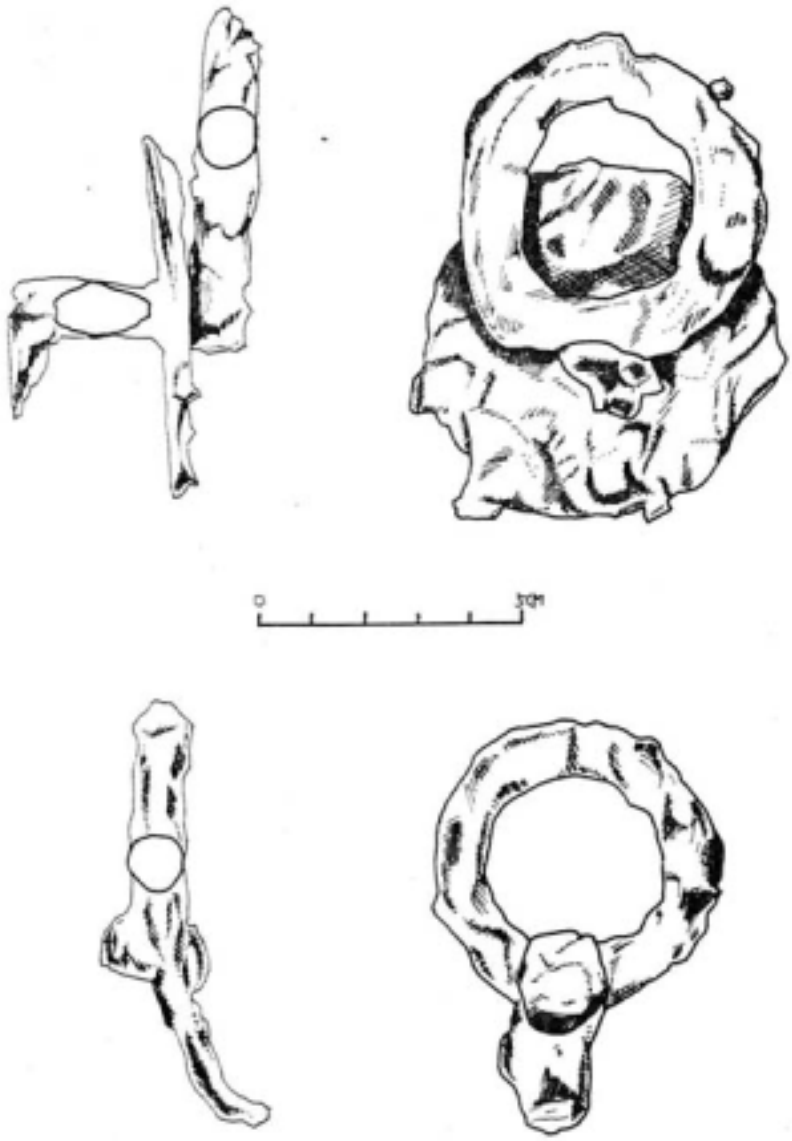
〈第 6 圖　鉢形土器〉

第6圖 발형토기(鉢形土器)



〈第 7 圖　銀粧刀柄 및 칼코〉

第7圖 은장도병(銀粧刀柄) 및 칼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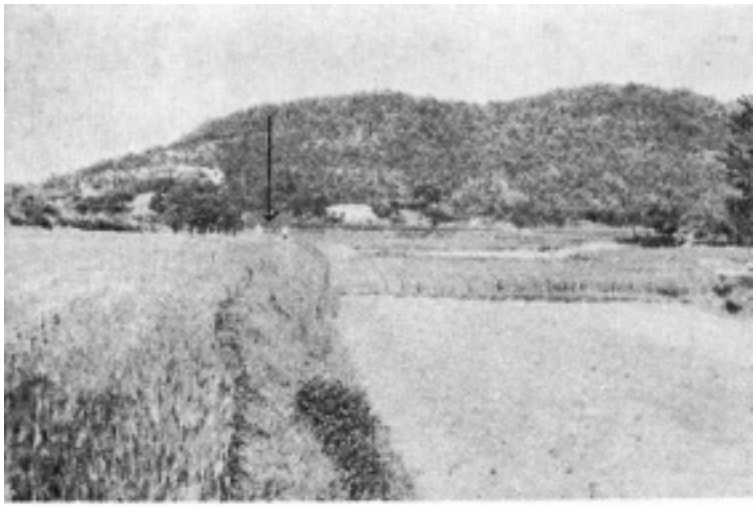


〈第 8 圖　棺고리〉

第8圖 관(棺)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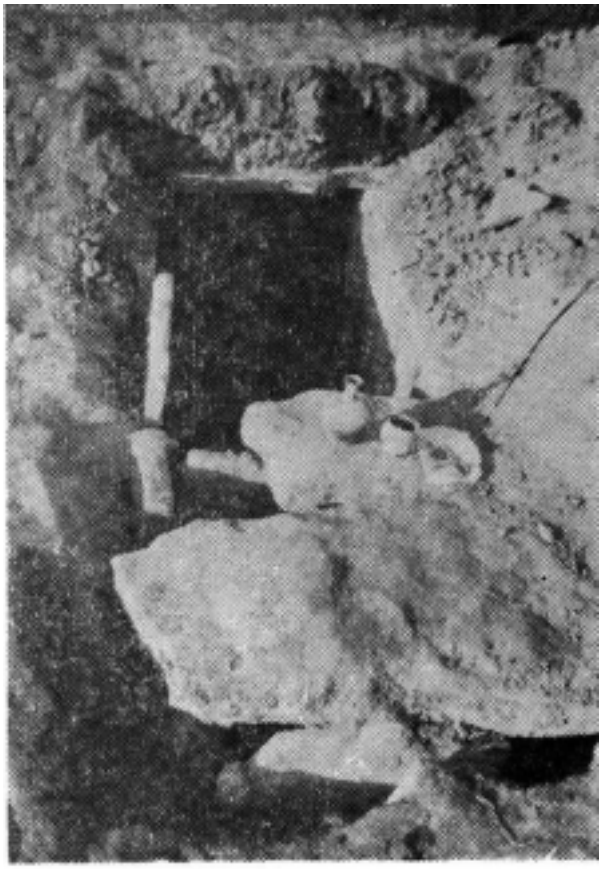
〈第 9 圖　棺釘〉

第9圖 관정(棺釘)



〈第10圖〉

第10圖 유적원경(遺蹟遠境) ↓표(表)가 고분(古墳), 뒷산이 자미산(紫徵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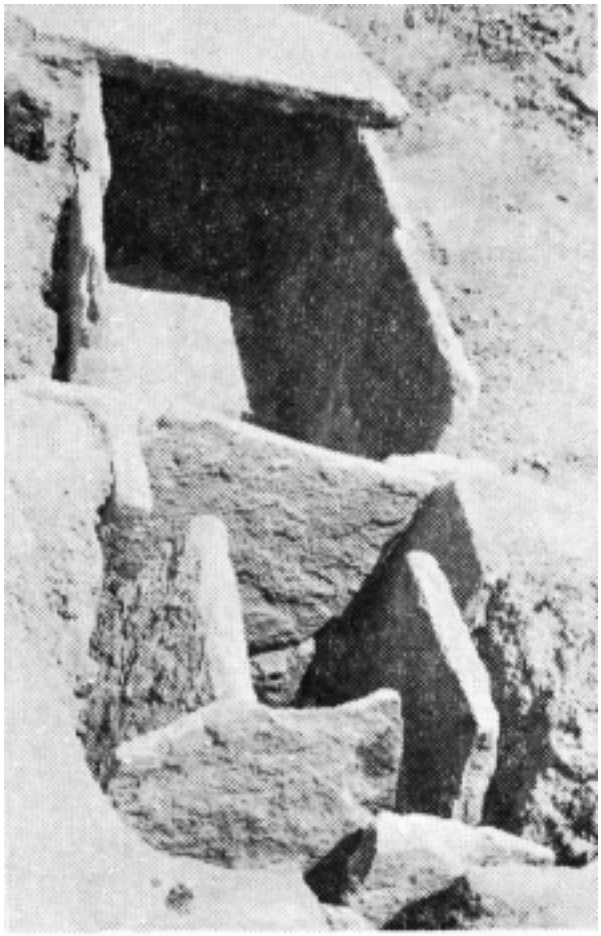


〈第11圖〉

第11圖 발굴조사전상태(發掘調査前狀態)

〈第12圖〉

第12圖 발굴조사광경(發掘調査光景)



〈第13圖〉

第13圖 석실구조(石室構造)

〈第14圖〉

第14圖 현실구조(玄室構造)

〈第15圖 墓壙과 石室. 一線이墓壙線〉

第15圖 묘광(墓壙)과 석실(石室), 일선(一線)이 묘광선(墓壙線)

〈第16圖　玄室蓋石의 壁石과의 接石面〉

第16圖 현실개석(玄室蓋石)의 벽석(壁石)과의 접석면(接石面)

〈第17圖　銀粧刀柄의 出土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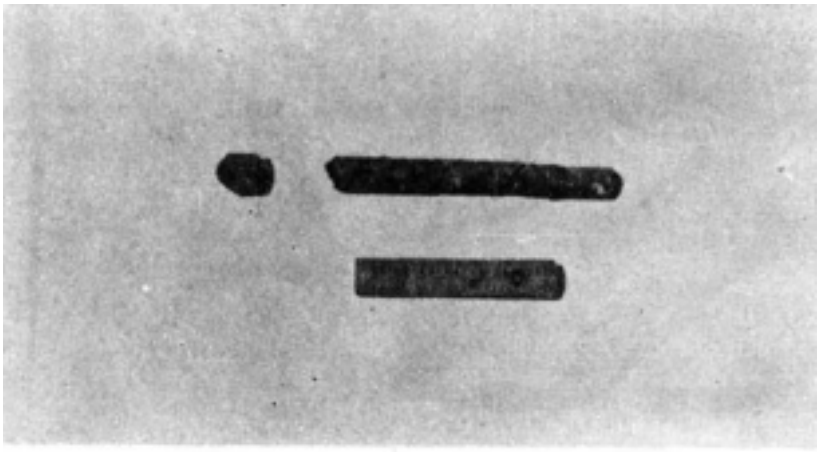
第17圖 은장도병(銀粧刀柄)의 출토상태(出土狀態)

〈第18圖　長頸壺〉

第18圖 장경호(莊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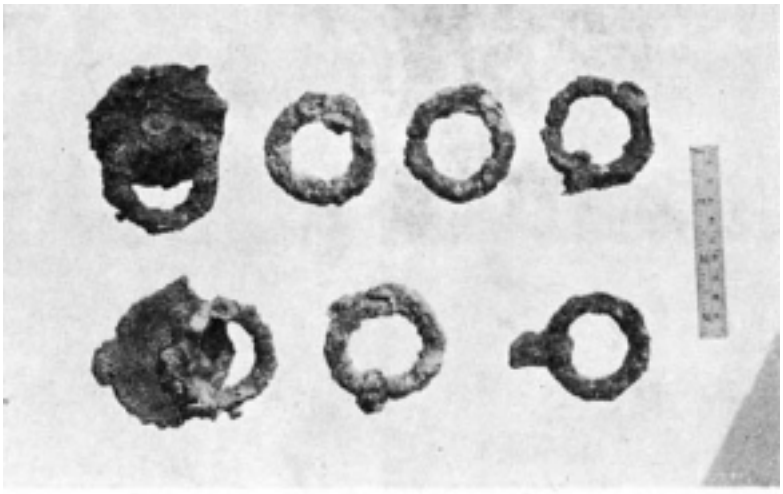
〈第19圖　鉢形, 土器〉

第19圖 발형(鉢形), 토기(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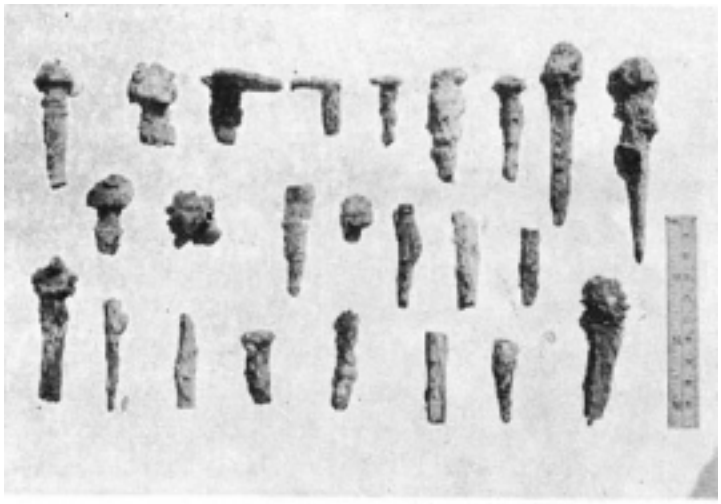
〈第20圖 銀粧刀柄과 칼코〉

第20圖 은장도병(銀粧刀柄)과 칼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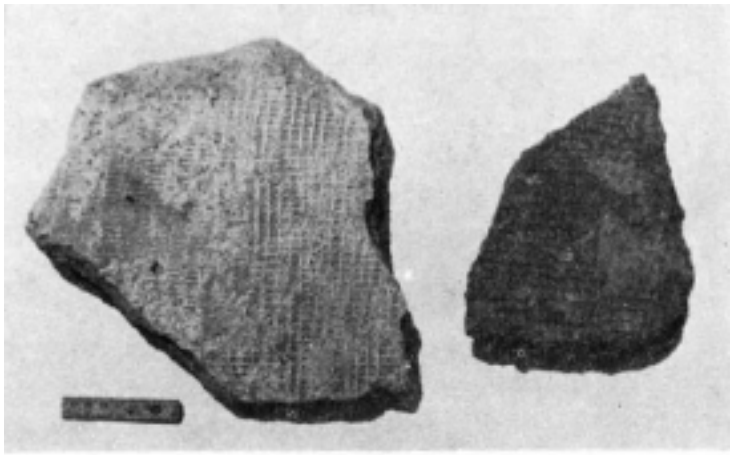
〈第21圖 棺고리〉

第21圖 관(棺)고리



〈第22圖　棺釘〉

第22圖 관정(棺釘)



〈第23圖　大安里 1號墳 甕棺破片〉

第23圖 대안리(大安里) 1호분(號墳) 옹관파편(甕棺破片)

주(註)

1) 朝鮮古蹟硏究會 '昭和 13年度 古蹟調査報告' pp31~33, 圖版 32~35, 1940.

2) 上同報告書, pp.20~35, 圖版16~36

朝鮮總督府, '大正 6年度古蹟調査報告'p663, 寫眞 255~261,1920.3

穴澤和光/馬目順一 '羅州潘南面古墳群-梅原考古 資料 井濟一씨 發掘遺物 硏究 古代學硏究 第70號 古代學硏究會, pp11~30, 1973.12

3) 本調査團이 이 一帶를 둘러본 結果 發掘調査가 안된 大安里 1號墳 역시 甕棺古墳이었음이 盜掘, 露出된 甕棺破片으로 알수 있었다.(第23圖).

4) 金元龍, '鬱陵島, 附 靈岩郡內洞里 甕棺墓'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四冊, pp.85~111, 1963 黃龍運, '靈岩內洞里 甕棺墓 調査報告', 慶喜大學校博物館 傳物총刊 第2冊, 1974.3

5) 有光敎一敎授는 註 1)報告書 p35에서 興德里石室墳은 甕棺古墳과 同時代/同文化의 것이며 調査確認은 안됐으나 이 地域 餘他 石室墳도 甕棺古墳과 併行하여 造營되었을 것''이라고 推測하고 있으나 이를 뒤받침할 根據가 充分한 것은 아니다.

6) 百濟 完全地下式 石室墳중 封土底徑 14m 程度되는 古墳의 封土高는 大略 1.5m~3m 範圍內에 있다. 姜仁求, 百濟古墳硏究 一志社, pp,32~33. 1977.

7) 日本九州大學 岡崎敬敎授의 敎示로 同大學院生 龜田 修一氏가 傳言.

8) 金元龍敎授의 敎示

9) 黑灰色硬質土器 長頸壺는 興德里石室墳에서도 보이며 그 全體的인 形態는 틀리나 細部手法에서는 類似한 點이 눈에 뜨인다.

註 1)報告書 p32, 圖版 35

10) 穴澤/馬目, 前載論文, 第7,8,9圖

11)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1韓國史論 4'서울大 人文大國史學科, pp3~130

12) 李丙수 '韓國史 古代篇' 塵壇學會. 1959. 6 所收 ''高句麗 興起/三國比定圖''參照.

13) 盧重國, 前載論文, pp107~109

百濟의 五方設置에 관한 記錄 을 보면 調書 百濟博에 治固麻城 基外更有五方 中方曰古少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 久知下城 西方曰 刀先城 北方曰 態津城 五方各有方領一人以達率爲之 郡將 三仁 以德率爲之 方統兵 一千二百人以下 七白人以上 城之內外民庶 及餘小 城咸分언'라는 記錄이 있다.

앞의 記錄을 보면 固麻城을 都邑로 定한 時代에 地方을 五方으로 나누고 그 中에 態津城이 五方의 一方으로 編入되고 있다. 그런데 固麻城이 바로 態津城으로 解釋되고 있어 問題가 생기나 이 固麻는 역시 泗比를 誤解한 것이며 그것은 北方曰 態津城이라는 語句와 一致된다.

李丙, 上同文獻, p430 參照

五方設置에 對한 記錄은 隨書百濟博에서도 볼수 있으나 省略한다.

14) 穴澤/馬目氏는 潘南面 甕棺土墳의 築造年代를 5c 穴澤을 前後로 하는 시기에 比定하고 있다.

穴澤/麻目, 前載論文, pp4~5

그리고 慶熙大 에서 發掘한 靈岩內洞 第 2號 甕棺墳, 第 5號 甕棺墳에 각각 副章된 2點의 注口土器 또는 日本에서 確立된 土器形式編年에 견주어 볼대 初期形式의 것으로

同甕棺墳의 年代가 AD5C後半以前에 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黃龍運.註 4)報告書. 圖版 15,25

金元龍, 惠比忖山墳墓群出土 韓國系遺物

惠比順山遺跡發掘調查報告 長崎懸峰村敎育委員會 pp.59~61, 1974.11

世界考古學大系 3-日本3' 平汎社, 1959, 所收, 古墳時代 順惠器 編年略表參照.